

수능 전 학원 중단... “카페서 과외 등 사교육 몰려” 우려

(일주일)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

교육부, 학원 대면수업 자제 권고
학원서 확진자 나오면 명칭 공개
불안 심리 사교육 수요 키울수도
실효성 의문, 거리두기 강화 지적

교육부가 수능 직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를 줄여보려는 의도로 전국 학원·교습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1주일 전부터 대면수업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가팔라질 조짐을 보이면서다. 그러나 되레 독서실이나 개인교습, 카페 등 방역 사각지대로 사교육이 몰릴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19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해 학원·교습소와 스터디카페, 오락실·노래방·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지난 15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 전체는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대면교습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능 특별 방역



공부하는 수험생들.

/연합뉴스

기간에 학원 내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기준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수능을 볼 병원 시험장 전국 29개소(총 120여 개 병상)를 먼저 확보한 상태. 보건당국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시험지구(86개)마다 별도 시험장을 운영하고자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을 을 마련했다.

그러나 수능 일주일 전 학원·교습소에 대면수업을 권고할 경우 되레 수험생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을 앞두고 불안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발길을 사교육 시장

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 선임 연구원은 “대입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은 수능 전까지 시험을 치르기 위한 생활 리듬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카페나 구조가 폐쇄적인 독서실로 수험생들이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외 일반 카페에서도 공공연히 교습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씨(50)는 “최근 인근 유명 음악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같은 학원이 아니라도 인근 카페에서 과외와 자습을 하는 상황에서 감염이 확산할까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면서 “학원들이 인터넷 강의로 전환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아이가 수능이 끝나기 전까지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개 단계에서 1·1.5·2·2.5·3 등 5개 단계로 세분화되면서 방역이 느슨해진 상태다. 전면 원격수업을 하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기존 100명에서 800명으로 상향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실적으로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 지역사회 감염 억제 효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단계 상향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면 수능 당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수능 2~3주 전의 환자 발생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구상한 것 같지만, 더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전진용 한양대 교수팀이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주관 ‘제15회 차세대문화공간공모전 2020’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양대

차세대문화공간 공모전서 전진용 한양대 교수팀 대상

한양대는 전진용 건축공학과 교수팀이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주관 ‘제15회 차세대문화공간공모전 2020-코로나시대의 뉴노멀 문화공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진용 교수팀은 공모전에서 삼성동 현대사옥 부지 문화공간(공연장) 조성 및 관련된 작품을 출품했다.

제출 작품명은 ‘거리, 거리(距離): 내일의 공연장, 거리를 품다’이다. 거리는 공간이 되고 공간은 거리가 된다는 설계 개념을 갖고,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신교통수단인 목적기반 모빌리티(Purpose Built Vehicle, PBV)와 도심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 등장에 따른 도시 거리의 변화 모습을 해석했다.

/이현진 기자

명지대 기술지주회사 ‘마이크로시스템’ ‘소부장 스타트업 100’에 선정

명지대는 기술지주회사 마이크로시스템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용 센서의 자가제정기술로 ‘소부장 스타트업 100’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능형 자동차의 눈에 해당하는 이미지 센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템이 개발한 전자식 자가제정기술은 기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속도가 1초 이내일 정도로 빠르다.

설립 3년 차인 주식회사 마이크로시스템은 지난해 ‘세계를 지향하는 韓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TUP 2019’에 참가해 모빌리티 분야에서 우승을 거두었다.

/이현진 기자

얼어붙은 취업시장 구직자 빛 ‘눈덩이’

사람인 구직자 1989명 대상 설문
34% “빛 있어”... 평균 3019만원
“부채에 불안감 등 우울감 느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구직자들의 빛도 늘어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구직자 1989명을 대상으로 ‘부채 현황’을 조사한 결과, 33.8%가 ‘빛을 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지는 빛은 평균 3019만원으로 집계됐다. 2261만원이던 지난해에 비해 무려 758만원(33.5%)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빛을 주로 사용한 용도는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37.5%,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등록금 등 학비(32.4%) ▲자취방 전월세 자금(27.7%) ▲개인 용돈(11%) ▲

학원 수강 등 취업준비비용(8.6%) 등이 있었다. 빛을 얻은 곳은 ‘제1금융권(은행) 대출’이 42%(복수응답)로 1위였다. 다음으로 ▲정부 대출(32.7%)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 대출(17.9%) ▲가족, 친인척에게 빌림(11.2%) ▲신용카드 현금서비스(8.8%) 등의 순이었다.

빛을 진 것이 구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불안감 등으로 자주 우울감을 느낌’(40.3%,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취업 자신감 상실(30.1%) ▲빨리 취업하기 위해 묻지마 지원 증가(30.1%) ▲연봉 등 처우 조건 우선으로 진로 결정(23.8%) ▲지출부담으로 스펙 준비 어려움(18.2%) ▲취업 잘되는 분야로 진로 변경(16.4%) ▲단기직, 계약직 전전(15.2%) 등의 순이었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교직원 봉사대, 사랑의 연탄나눔 온정

삼육대 교직원 봉사대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온정을 나눴다. 16일 삼육대에 따르면 삼육대 교수와 직원, 직원 가족, 학생과 남양주시 서부희망케어센터 신영미 센터장, 사회복지사 등 16명이 참석해 연탄 1500장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삼육대

세종대 세계대학평가서 컴퓨터학 국내 6위

세종대는 영국 고등교육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2021 세계대학평가’에서 컴퓨터학 부문 국내 6위, 세계 151~175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THE 세계대학 평가는 세계 1500개 이상의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연구실적 ▲논문 피인용도 ▲국제화 ▲산학협력수입 등 5개 평가 항목에 총 13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세종대는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된 이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교생 SW코딩교육 ▲SW융합연계전공 ▲SW집중 교육과정 ▲SW해커톤 등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

SW 중심대학사업 선정 이전인

2014년부터 국내 최초 수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학 전 SW 교육과정인 ‘예비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 교육과정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이듬해 이를 정규 학기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국내 최초로 전교생 SW코딩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후 SW 중심대학사업 선정을 계기로 매년 SW비전공자의 전공계열별 특성과 실습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교육 운영, 콘텐츠 및 실습을 점진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세종대는 교재와 강의 교안을 포함한 모든 교육 콘텐츠를 전공계열 및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새롭게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온라인코딩평가시스템을 전교생 코딩 실습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산학협력 혁신생태계 길 열렸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사업 선정

호서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향후 3년간(2020년~2022년)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의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서대는 이번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그간 축적해왔던 산학협력 역량을 기반으로 충남 혁신도시 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주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부산디지털대 영상크리에이티브학과 신설

부산디지털대는 영상크리에이티브학과를 신설해 12월부터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상크리에이티브학과는 1인 미디어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유튜브(영상) 제작 전문가’와 ‘SNS 마케팅 전문가’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현장 기술 중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영상크리에이티브학과는 학과 특성화를 통해 영상콘텐츠전문가과정과 SNS마케팅전문가과정으로 나눠 운영된다. 영상콘텐츠전문가과정은 영상촬영분야, 영상편집분야, 유튜브 제작 및 운영분야로 전문화하며, SNS마케팅전문가과정은 페이스북·블로그·인스타그램 제작분야, 디지털 마케팅 분야로 전문화된다.

/이현진 기자